

작품 내용

제 목	슬기로운 덕질 생활과 저작권
내 용	나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덕후’다. 시험 기간에도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보며 힐링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기뻐하고, 용돈을 모아 앨범과 굿즈를 사는데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고민되는 일이 생겼다. 한 친구가 유료 소통 앱에 올라온 아티스트의 미공개 사진을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린 것이다. “이거 유료인데 올려도 돼?” 라고 묻자 친구는 "우리끼리 보는건데 뭐 어때, 다 덕질 잘하자고 그런건데!" 라며 웃어넘겼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맞아, 좋아해서 그러는건데 뭐 어때’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 구석이 찝찝했다. 사실 예전에는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하고, 예쁜 부분만 잘라서 내 sns 프로필로 사용하거나 게시물로 올리는게 왜 문제인지 몰랐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진을 공유하고 홍보해주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더 유명해지니까 그 가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저작권에 대해 배우고 알게되면서 사실은 나의 이런 행동들이 슬기로운 덕질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열심히 노력해 만든 결과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멋진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춤추고 사진에 예쁘게 찍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그 노력의 결과물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 만약 내가 밤새워 열심히 그린 그림을 누군가 함부로 가져가 자기 것인 양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다면 나라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것 같다. 진정한 팬이라면 아티스트가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일까? 거창한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음원은 정식 사이트에서 듣고, 영상과 사진은 공식 채널을 통해 시청하는 것이다. 또한 유료 콘텐츠는 우리들만의 소중한 약속으로 간직하고 함부로 퍼트리지 않는 매너도 필요하다. 사진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공식 계정 링크를 올리는 작은 배려만으로도 아티스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번 글을 쓰면서 나는 저작권이 단순히 하지 말아야할 금지 사항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주는 안전벨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더 안심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좋아하니까 괜찮아’ 라는 핑계 뒤에 숨지 않으려고 한다. 아티스트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팬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팬이자 슬기로운 덕질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부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멋진 팬이 되기로 다짐했다.